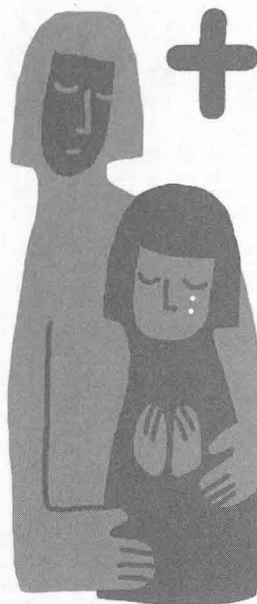


일 매일 죽음을 앞둔 말기 암환자들을 만나며 너무나 아름다운 임종이었기에 항상 그림자처럼 엘리사벳씨와 함께 했던 그녀의 남편과 지금은 편안히 하느님 나라에 계실 엘리사벳씨를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남은 유가족들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토막 상식

호스피스에 들어오는 환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에 힘든 점이 많다.

예를 들어 뇌종양 환자의 경우 질환 자체가 방산 치료의 후유증으로 기억상실, 언어 장애, 지각 장애, 마비 등으로 인해 인격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일상 생활이나 가족과의 의사 소통에도 큰 불편을 느끼게 된다. 또 구토, 식욕부진 등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손떨림이나 마비로 수저를 쓰기 힘들어 진다.

호스피스 환자가 임종 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의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영국에서는

호스피스센터마다 occupational therapist(작업 치료사)가 있어 여러 가지 의료 외적인 도움을 주는데 가정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집을 방문하여 환자가 거처할 곳을 살펴보고 필요한 도구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 발간되는 회지의 토막 상식 난에서 occupational therapist 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씩 찾아내어 보고자 한다.

김민정(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회장)